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 브리프
BRIEF
Gyeongsangnamdo Women & Family Foundation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2025. 12 Vol 5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T. 055-713-7076 F. 055-713-7093 www.gnwff.or.kr

오지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경남의 혼인·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요인: 17개 시도별 비교를 중심으로[1)]

01. 혼인·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요인 분석 개요
02. 지역별 사회 특성이 혼인율에 미치는 영향
03. 지역별 사회 특성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04. 경남의 향후 인구정책 방향

■ 경남은 다른 지역보다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감소 속도가 최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일례로 경남의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으나 출산율 지표의 감소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경남 청년들의 출산 행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경남은 청년들의 조혼인율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어 혼인율 감소에 따른 인구의 자연감소 현상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측됨

■ 한편, 지역사회 인구감소와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인구 변화를 이끄는 인구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에서 경남의 혼인·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사회구조적 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이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혼인·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17개 시도별로 분석함으로써 경남의 인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을 도출하고자 함

01. 혼인·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요인 분석 개요

» 분석 개요

■ 경남의 혼인율 및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요인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함

■ 일반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개인의 학력, 소득, 연령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는(South, 2001; Xie, Raymo, Goyette, and Thornton, 2003; 유홍준·현성민, 2010; 윤자영 2012) 경향이 강함. 그러나 이 연구는 이러한 미시적 특성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구조적 요인의 영향에 주목하여 거시적 수준의 변수를 중심으로 지역간 차이를 분석하고자 함

1) 본 내용은 2025년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한 [경남의 인구 증가를 위한 분석 및 정책 방안] 연구의장 내용을 발췌하고 재구성함

■ 2014년부터 2023년까지[2] 총 10개년간 17개 시도별 혼인율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살펴봄. 사회구조적 요인으로는 1)경제적 요인, 2)결혼 및 출산 가치관, 3)성평등 수준, 4)인구구조로 구분됨

■ 분석은 경제적 요인, 가치관, 성평등 수준, 인구구조 변수로 구분하여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s model)을 분석한 다음 17개 시도별 혼인 및 출산율 예측값을 제시함

■ 경남의 혼인·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총 15개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함

■ 우선 경제적 요인의 경우,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지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청년 고용률, 청년 상용직(전체/남성/여성) 비율을 고려하였고, 가치관 요인으로는 결혼 및 동거, 그리고 부부 중심의 결혼생활 가치관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봄. 성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지역별 남녀임금격차와 지역성평등지수, 그리고 가사노동 분담에 관한 가치관 수준이 고려되었으며, 인구구조 변수로는 지역 내 청년인구 비중 및 청년 성비가 분석에 포함됨

표 1 사회구조적 요인 변수 기본사항

구분	항목	변수내용(단위)	출처
경제적 요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단위면적당 아파트 실거래가격 평균(만 원)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단위면적당 아파트 전세보증금 평균(만 원)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20~39세 경제활동참가율(%)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 고용률	20~39세 고용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 상용직 비율	20~39세 지역 고용 중 상용직 일자리 비중(%)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청년 남성 상용직 비율	20~39세 지역 고용 중 남성 상용직 일자리 비중(%)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청년 여성 상용직 비율	20~39세 지역 고용 중 여성 상용직 일자리 비중(%)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가치관	결혼 가치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통계청 [사회조사]
	동거 가치관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
	부부 중심 결혼 가치관	결혼생활은 부부보다 가족관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통계청 [사회조사]
성평등 수준	남녀임금격차	상용직 남녀 간의 임금격차(만 원)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지역성평등지수	지역별 성평등지수(순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역성평등보고서]
	가사노동 분담 가치관	가사노동 분담에 관한 남녀 간 역할 인식	통계청 [사회조사]
인구구조	청년인구 비중	전체 인구 중 청년인구(만18세~39세) 비중(%)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청년 성비	청년인구(만18세~39세) 성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 한편, 종속변수인 지역별 혼인율 변화는 17개 시도별 조혼인율의 10년간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출산율은 합계출산율 지표를 활용함

2) 일부 변수의 경우, 2024년 최신 자료 구득에 한계가 있어 2023년으로 통일하여 분석함. 한편, 세종특별자치시는 일부 변수가 2017년 또는 2019년 이후에야 수집되기 시작해, 전체 10개년에 대한 분석에 포함되지 못함

02. 지역별 사회 특성이 혼인율에 미치는 영향

시도별 혼인율 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회구조적 요인

■ <표 2>는 시도별 혼인율 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회구조적 요인을 순위별로 정리한 것으로, 혼인율 감소의 원인은 지역별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향후 인구정책 수립 시에는 획일적인 접근이 아니라 지역적 특성과 구조적 조건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

■ 먼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혼인율 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회구조적 요인이 경제 → 성평등 → 가치관 → 인구구조 순으로 나타나, 경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확인됨. 이는 수도권에서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이 혼인 감소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2 시도별 혼인율 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회구조적 요인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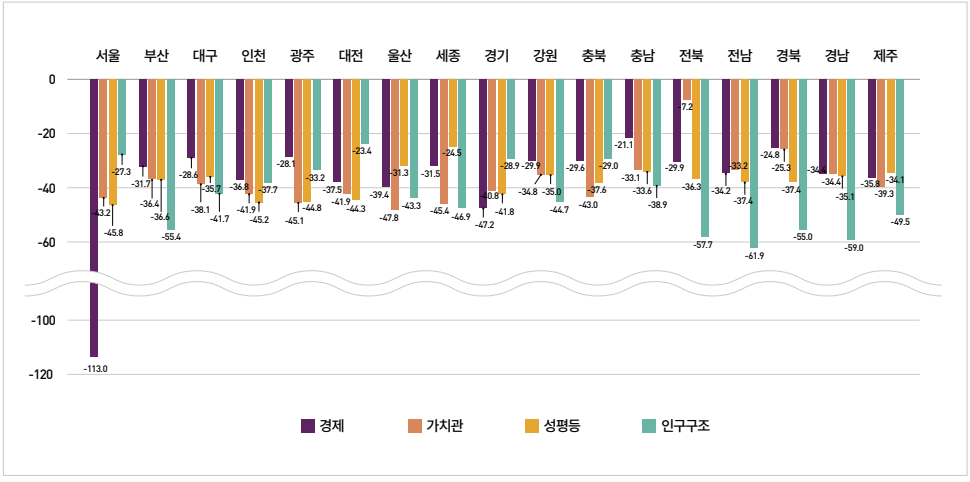
지역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서울	경제(-113.04%)	성평등(-45.81%)	가치관(-43.23%)	인구구조(-27.33%)
부산	인구구조(-55.36%)	성평등(-36.64%)	가치관(-36.42%)	경제(-31.70%)
대구	인구구조(-41.74%)	가치관(-38.09%)	성평등(-35.72%)	경제(-28.59%)
인천	성평등(-45.19%)	가치관(-41.91%)	인구구조(-37.71%)	경제(-36.75%)
광주	가치관(-45.06%)	성평등(-44.80%)	인구구조(-33.18%)	경제(-28.06%)
대전	성평등(-44.29%)	가치관(-41.89%)	경제(-37.52%)	인구구조(-23.41%)
울산	가치관(-47.83%)	인구구조(-43.30%)	경제(-39.40%)	성평등(-31.33%)
세종	인구구조(-46.92%)	가치관(-45.43%)	경제(-31.51%)	성평등(-24.47%)
경기	경제(-47.19%)	성평등(-41.79%)	가치관(-40.75%)	인구구조(-28.92%)
강원	인구구조(-44.70%)	성평등(-34.98%)	가치관(-34.76%)	경제(-29.88%)
충북	가치관(-42.98%)	성평등(-37.63%)	경제(-29.64%)	인구구조(-28.99%)
충남	인구구조(-38.91%)	성평등(-33.62%)	가치관(-33.13%)	경제(-21.14%)
전북	인구구조(-57.72%)	성평등(-36.27%)	경제(-29.93%)	가치관(-7.15%)
전남	인구구조(-61.86%)	성평등(-37.42%)	경제(-34.20%)	가치관(-33.18%)
경북	인구구조(-55.04%)	성평등(-37.33%)	가치관(-25.32%)	경제(-24.80%)
경남	인구구조(-59.03%)	성평등(-35.12%)	가치관(-34.36%)	경제(-34.35%)
제주	인구구조(-49.46%)	가치관(-39.30%)	경제(-35.80%)	성평등(-34.07%)

■ 그러나 경남을 비롯한 부산, 강원, 충남, 경북은 인구구조 → 성평등 → 가치관 → 경제 순으로 나타나, 청년인구의 유출 및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성평등 가치관 확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참여 변화와 가족문화의 재편이 혼인 감소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됨.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청년층 정착을 유도하는 인구유지 정책과 함께 성평등 의식 확산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문화 환경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인천, 광주, 대전, 충북은 1순위와 2순위 요인이 가치관 또는 성평등 수준으로 나타나, 경제적 조건보다 사회문화적 인식 변화가 혼인율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친 특징을 보임. 이는 전통적 결혼관의 약화와 개인적 삶의 가치 중시가 해당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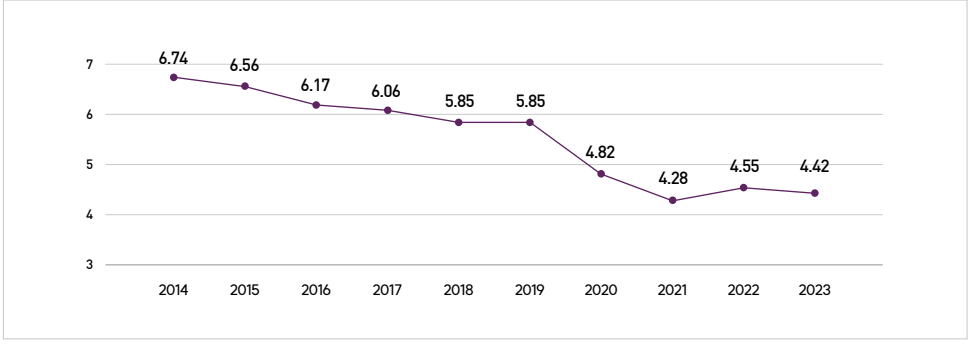
그림 1 시도별 혼인율 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회구조적 요인



■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그동안 혼인율 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 논의되어 온 경제적 요인이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결정적인 변수로 나타난 반면, 비수도권 다수 지역(부산, 대구, 인천, 광주, 강원, 충남, 경북, 경남)에서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는 점임. 이는 지역의 인구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경제환원론적 관점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며, 인구구조적 요인과 가치관·성평등 등 사회문화적 요인을 함께 고려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단위: %)

그림 2 경제적 요인이 경남 조혼인율 변화 (2014~2023)에 미친 영향



(단위: %)

그림 3 가치관 요인이 경남 조혼인율 변화 (2014~2023)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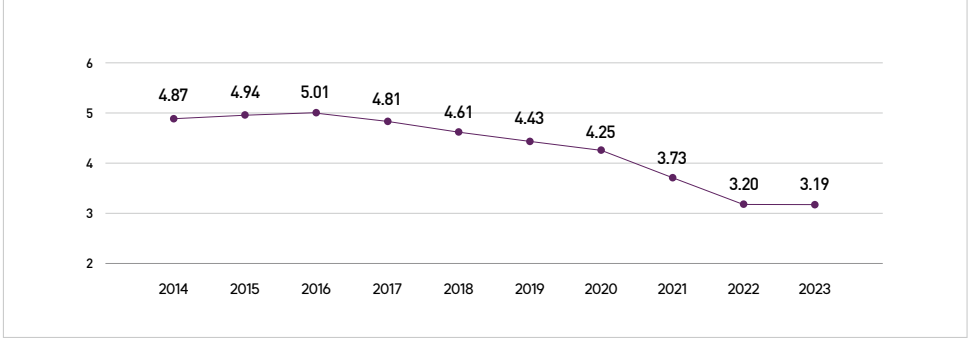


그림 4 성평등 수준이 경남 조혼인율 변화(2014~2023)에 미친 영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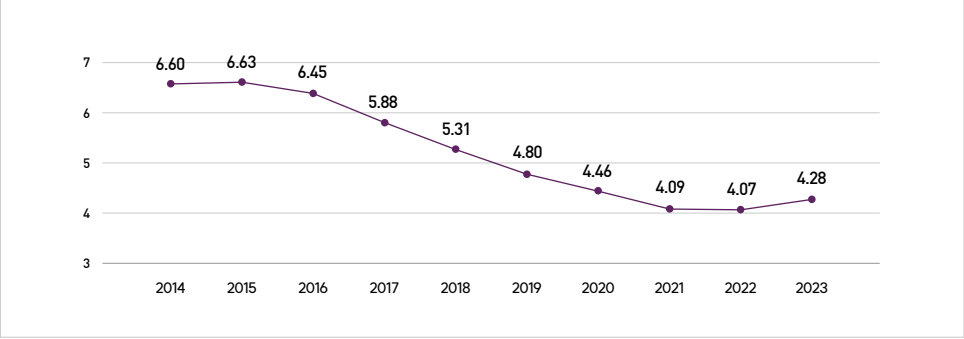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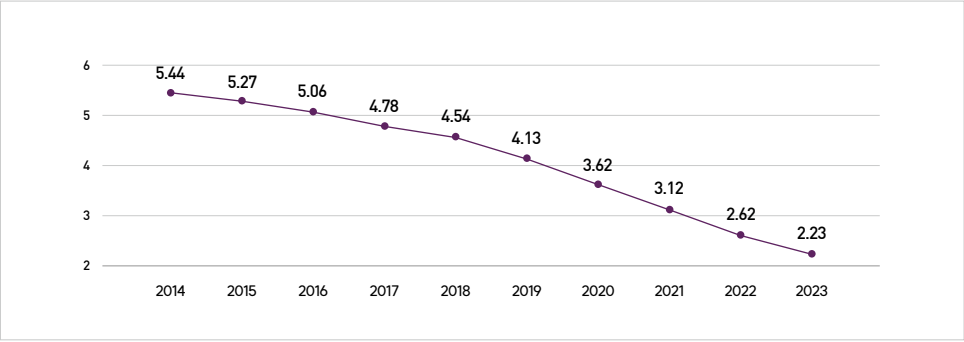


그림 5 인구구조가 경남 조혼인율 변화(2014~2023)에 미친 영향

(단위: %)



03. 지역별 사회 특성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시도별 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회구조적 요인

■ <표 3>은 시도별 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회구조적 요인을 순위별로 제시한 것으로, 지역마다 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이 다르게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앞선 혼인율 감소 결과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맥락에 따라 작동하는 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줌

표 3 시도별 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회구조적 요인 순위

지역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서울	경제(-86.52%)	성평등(-46.18%)	가치관(-44.90%)	인구구조(-18.40%)
부산	인구구조(-47.04%)	가치관(-38.20%)	성평등(-36.55%)	경제(-31.44%)
대구	인구구조(-41.65%)	가치관(-39.44%)	성평등(-35.92%)	경제(-28.68%)
인천	성평등(-45.36%)	가치관(-43.36%)	경제(-36.63%)	인구구조(-35.48%)
광주	성평등(-45.07%)	가치관(-44.87%)	인구구조(-32.79%)	경제(-26.51%)
대전	성평등(-44.62%)	가치관(-41.65%)	경제(-38.28%)	인구구조(-25.53%)
울산	인구구조(-50.75%)	가치관(-48.24%)	경제(-41.05%)	성평등(-31.31%)
세종	가치관(-46.64%)	인구구조(-33.30%)	경제(-28.25%)	성평등(-24.70%)
경기	경제(-45.75%)	가치관(-41.93%)	성평등(-41.90%)	인구구조(-30.40%)

지역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강원	인구구조(-51.83%)	가치관(-36.21%)	성평등(-35.14%)	경제(-32.26%)
충북	가치관(-44.51%)	인구구조(-39.52%)	성평등(-37.70%)	경제(-31.69%)
충남	인구구조(-46.72%)	성평등(-34.04%)	가치관(-32.66%)	경제(-22.27%)
전북	인구구조(-56.42%)	성평등(-36.58%)	경제(-31.88%)	가치관(-6.88%)
전남	인구구조(-68.35%)	성평등(-37.46%)	경제(-35.83%)	가치관(-34.26%)
경북	인구구조(-68.17%)	성평등(-37.42%)	가치관(-26.54%)	경제(-24.12%)
경남	인구구조(-64.38%)	가치관(-36.77%)	성평등(-35.27%)	경제(-35.24%)
제주	인구구조(-43.57%)	가치관(-40.17%)	경제(-35.84%)	성평등(-34.66%)

- 서울과 경기 지역은 공통적으로 경제적 요인이 1순위로 확인됨. 이는 수도권에서 높은 주거비와 양육비, 생활비 부담이 출산 기피의 핵심적인 원인임을 의미하며, 반대로 인구구조 요인은 가장 낮은 순위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미약함. 즉, 수도권에서는 경제적 제약이 출산율 저하를 직접적으로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함
- 이에 반해 경남을 포함한 부산, 대구, 강원은 인구구조 → 가치관 → 성평등 → 경제 순으로 나타나,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층 인구의 외부 유출과 고령화 심화라는 구조적 요인임이 드러남. 특히 혼인율 감소 분석에서 성평등 요인이 가치관보다 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것과 달리, 출산율에서는 가치관이 성평등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보였다는 점이 특징적임. 이는 경남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구조적 인구 축소와 결혼·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결합해 출산율 저하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줌
- 울산은 인구구조 → 가치관 → 경제 → 성평등 순으로 나타나, 경제적 요인이 성평등 수준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됨. 이는 해당 지역에서 산업·고용 여건과 생활비 부담이 출산율 결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줌

그림 6 시도별 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회구조적 요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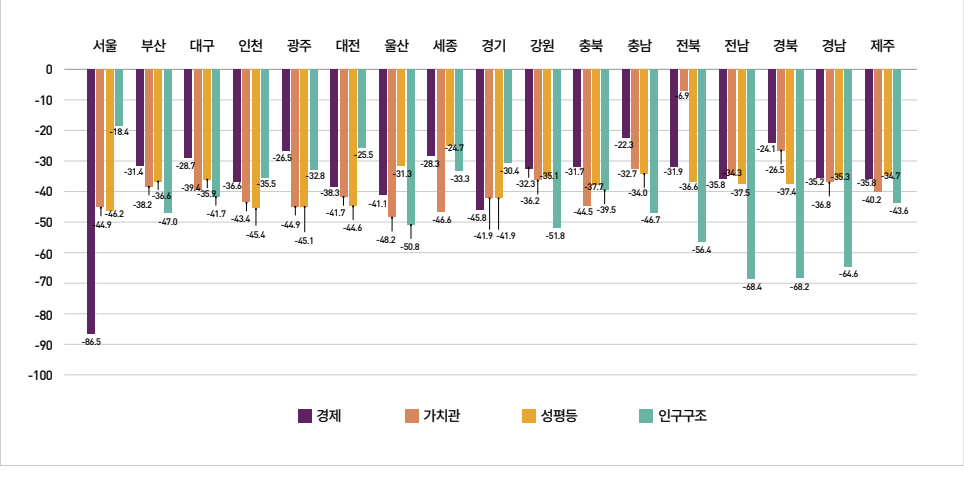


그림 7 경제적 요인이 경남 합계출산율 변화 (2014~2023)에 미친 영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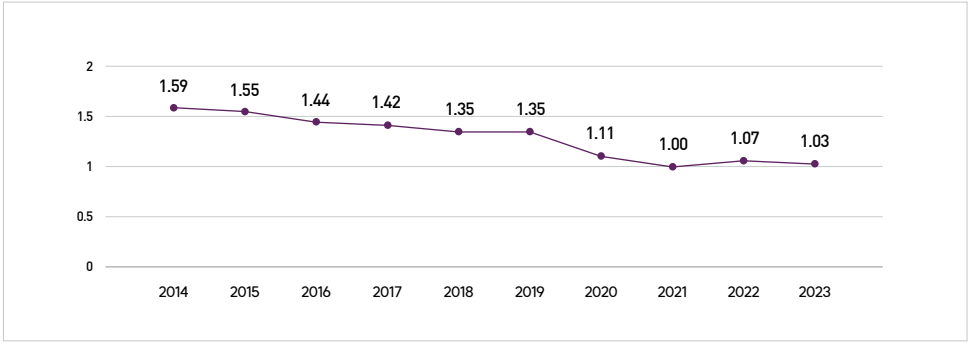


그림 8 가치관 요인이 경남 합계출산율 변화 (2014~2023)에 미친 영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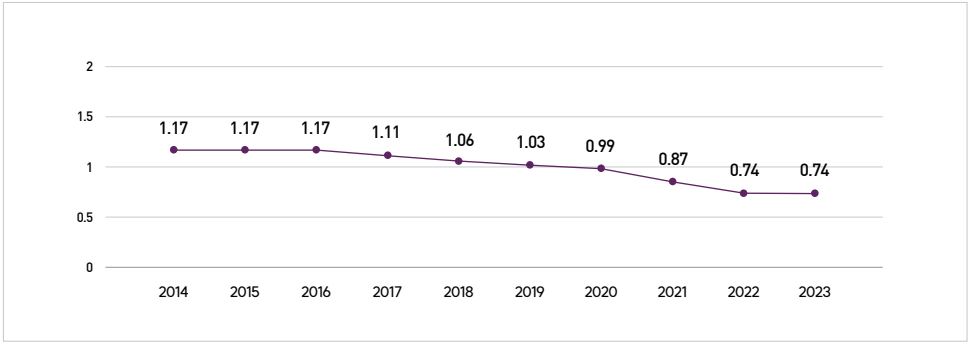


그림 9 성평등 수준이 경남 합계출산율 변화 (2014~2023)에 미친 영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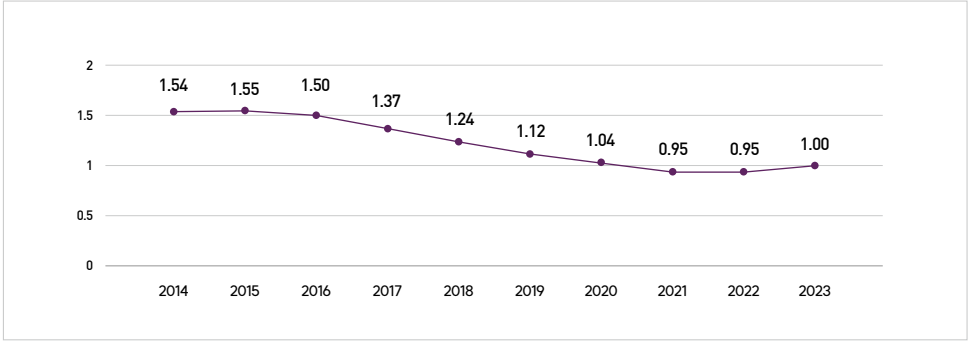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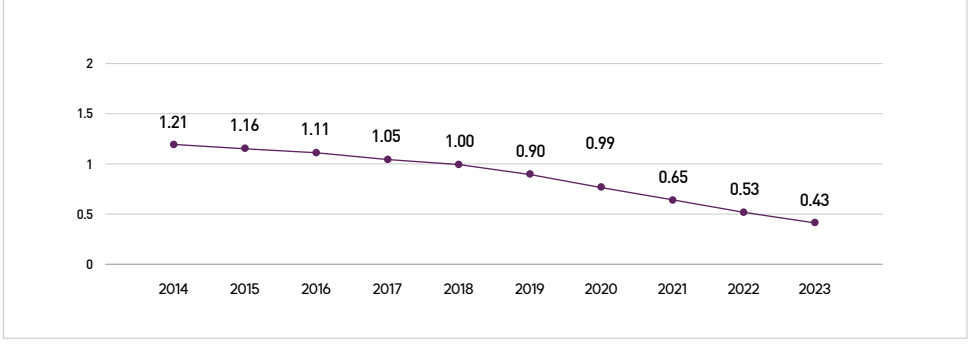


그림 10 인구구조가 경남 합계출산율 변화 (2014~2023)에 미친 영향

(단위: %)



- 반면 인천, 광주, 대전은 성평등이나 가치관 요인이 1순위와 2순위를 차지해, 출산율 감소에서 경제적 부담보다 사회문화적 인식 변화가 더 큰 설명력을 갖는 특징을 보임. 즉, 이들 지역에서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성평등 인식 향상, 삶의 질 중시와 같은 문화적 요인이 출산율 저하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침

-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경제적 요인이 혼인·출산 결정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사실상 서울과 경기로 한정된다는 사실임. 반면, 비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경제 요인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인구구조 변화(청년층 규모 축소·성비 불균형 등)와 가족가치관, 성평등 수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혼인·출산 감소를 설명하는 데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비수도권의 저출산 문제를 단순한 경제 문제로 접근할 경우 실질적인 원인을 놓칠 가능성이 크며, 각 지역의 인구 특성과 사회문화적 조건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함

04. 경남의 향후 인구정책 방향

- 사회구조적 요인 분석 결과, 경남은 혼인·출산율 감소에 있어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인구구조 요인을 지닌 지역으로 확인됨. 경제적 부담이 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를 가져온 절대적 요인으로 작동한 것과 달리, 경남은 청년인구 유출, 고령화 심화, 낮은 인구밀도, 성비 불균형 등 구조적 조건 자체가 결혼·출산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특히 출산율 변화에서 인구구조 요인의 영향력이 -64% 이상으로 나타난 것은, 단순히 청년들의 결혼 기피가 아니라 '결혼할 수 있는 인구 기반 자체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줌

- 더불어 성평등과 가치관, 경제적 요인 모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남은 경제·문화·사회 구조가 복합적으로 취약한 '이중·삼중의 부담 구조'를 안고 있음. 따라서 경남의 인구정책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청년인구의 유입과 정착, 사회문화적 기반 강화, 성평등 인식 확산을 포괄하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함

- 경남의 현 상황은 단순한 "경제적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인구의 절대적 부족, ▲성평등 및 가치관 변화, ▲주거·고용 기반의 불안정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 위기임. 즉, 수도권처럼 경제 부담 완화 중심의 정책이나 대도시처럼 사회문화적 인식 전환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움. 경남은 청년층이 지역에 머물고, 머무른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가능한 선택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

- 우선 청년인구의 지역 정착과 유입을 유도하는 적극적 전략이 필요함. 지역산업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 주거·문화 인프라 확충, 귀향·이주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핵심임. 또한 사회문화적 기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청년 친화적 지역 커뮤니티 조성,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사회 분위기 형성이 뒷받침될 때, 경제적 지원 정책의 효과도 발휘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경남의 인구감소 문제는 단일 요인으로 설명되거나 단기적 지원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 과제임. 경제적 기반 강화와 더불어 성평등한 사회문화 조성, 청년인구 정착 전략,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경남은 혼인·출산율 회복을 넘어 지속 가능한 인구구조를 형성할 수 있음. 이는 단순한 출산장려정책을 넘어, 경남 청년들이 "머물고 싶고, 결혼·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장기적 과제라 할 수 있음

참고문헌

- 유홍준·현성민(2010). 경제적 자원이 미혼 남녀의 결혼 연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3(1): 75-101.
- 윤자영(2012). 노동시장통합과 결혼 이행. 한국인구학, 35(2): 159-184.
- South, Scott J. 2001. The variable effects of family background on the timing of first marriage: United States, 1969 1993. Social Science Research, 30(44):606-626.
- Xie, Yu, James M. Raymo, Kimberly Goyette, and Arland Thornton. 2003. Economic Potential and Entry into Marriage and Cohabitation. Demography, 40(2):351-367.